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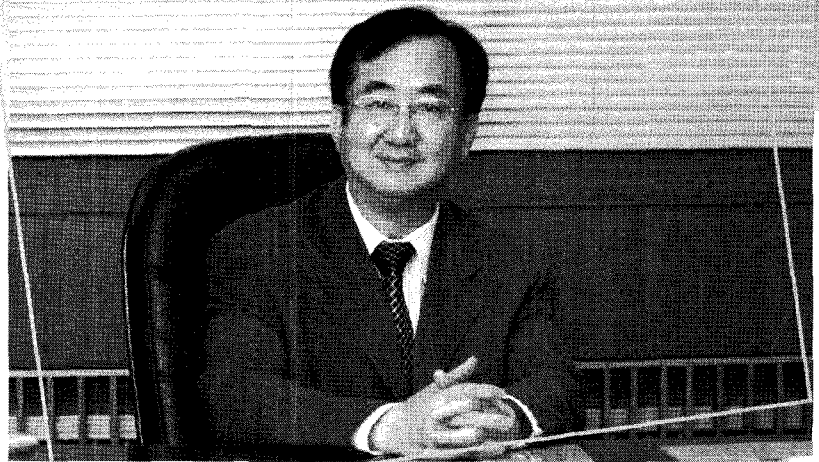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돼야

▣ 서부사료(주) 정세진 회장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경영은 단순히 기업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고객의 선택을 받으므로 경영성과를 이루어내는 경제적 순환구조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 그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며, 결국 기업은 이러한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정세진 회장이 서부사료(주)를 맡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그만의 경영철학이다.

창업주인 故 정규봉 회장의 장남인 정세진 회장(60세)은 1985년에 서부사료에 입사하여 본격적인 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



작했다. 이후 그는 각 부서를 거치며 동사 이 사직을 마지막으로 1997년 8월에 제5대 서부사료(주)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다. 취임 후 그는 노후된 모든 설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등 서부사료의 본격적인 제2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알찬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서울이 고향인 정세진 회장은 고양 YMCA 이사, 극동방송 운영위원(현 운영위원회 협



▲ 사랑나눔 도서바자회 성금기부 모습.

동충무), 의료보험조합 인천지부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부사료(주)·(주)트루라이프 대표이사, CBMC(한국기독교실업인회) 종로지회 부회장, 북인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다음은 정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Q.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이념은?

A. 앞서 말씀드린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서부사료, 트루라이프를 포함하는 서부그룹은 ‘초일류식품종합그룹’으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 일류화를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고객과의 Win-Win 전략관계를 통해 고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의 핵심 업무인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미션은 정직, 성실, 봉사, 사랑, 창의성 다섯 가지 서부그룹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기업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기 위한 6가지 경영방침 하에서 (▶현장중심, 고객중심 정도경영 ▶경영자마인드를 통한 최적화 경영의 실현 ▶최고의 가치실현을 위한 인재육성 ▶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도전경영 실현 ▶환경 친화적인 기업추구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선도경영 실현) 실제로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성장과정에서 잊지 못할 추억은?

A. 유년시절의 추억이라기보다 죽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깨닫게 한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어렸을 적 당시 친척 댁에 놀러가서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져서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다 ‘반대방향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친구의 소리를 듣고 당시 수영을 잘 못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에게는 절박한 순간에 평소에는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사람이 가진 잠재력, 능력을 발휘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돌파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Q. 회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A.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일을 추진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때문에 실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신중한 성격으로 중대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깊이 고민하여 판단하는 편입니다. 반면 순발력이 떨어져 실행이 다소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 앞에 나서기를 다소 꺼려하는 편이어서 CEO로서 여러 사람 앞에 나



▲ 인천광역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모습

서는 자리가 많은데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Q. 회장님의 인간상(좌우명 및 생활신조)은?

A. 서부그룹의 가치관과 같은 정직, 성실, 봉사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큰 자산이며, 봉사의 정신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나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정직, 성실, 봉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Q. 앞으로 축산·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A. 앞으로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보던 시각만으로는 우리가 얻고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산업을 경영하든 생산자의 입장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축산물은 소비자들에게 소중한 먹거리 즉 식품으로서 공급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인체에 무해한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선택합니다. 최근 방영된 '옥수수의 습격'에서 보듯이 단순히 축산물의 안전성, 신선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축산물의 내용성분 중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까지 선택기준으로 삼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업을 경영해야 함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기반으로 생산현장에서의 환경개선과 합리적인 사양관리, 질병관리, 영양관리를 통해 무엇보다도 가축들의 강건성을 유지하여 강건한 개체들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이 신선하게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료는 가축들의 건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한 요소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사양관리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가축들에게 요구되는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사료를 생산하고 공급하여 가축 또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잡힌 먹이를 알맞게 섭취하므로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생산,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서부사료가 1979년 현 소재지로 이전할 때만 해도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지속된 개발로 인해 서부사료가 도심 속에 위치한 공장으로 기존



▲ 창립 41주년 기념 단체 사진

의 상황과는 현저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심과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장을 만들자는 목표로 과감한 투자와 환경개선 등에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서부사료가 지난 2006년 6월 HACCP인증을 받는데 이어 2008년 6월 재심사에서 전체 사료공장 가운데 2번째로 HACCP 무결함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서부사료가 2006년 12월 기업환경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이어 2009년 12월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Eco Friendly Zone(친환경 구역)조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전부터 (주)트루라이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장경영컨설팅 전개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서부사료가 농장별·계군별 맞춤 최적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고객농장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업계 및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트루라이프가 세계 축산분야 최초로 아프리카 앙골라를 대상으로 EDCF 차관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도 우리의 선진화된 양계기술을 알리고 저개발국가의 양계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적 영양개선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서부사료 및 트루라이프를 이끌어 나갈 계획은?

A. 40년 기업을 넘어서 100년 그 이상의 기업을 향해 2011년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전 구성원이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축산업계가 FTA로 인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농장경영 컨설팅을 확대·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컨설팅 활동을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앙골라에서의 농축산 컨설팅 활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러시아의 양돈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저개발국가의 식량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서부그룹이 지향하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일에 전력투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을 향한 도전으로 농축산 컨설팅 활동을 우리의 핵심역량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정착시켜 세계적인 '초일류식품종합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